

광주·전남 아파트 나라장터 물품구매 한 건도 없어

조달청 관리비 비리 근절 위해 민간개방 전국서 484곳 등록 18건 전자입찰 진행

광주·전남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물품 구매 조달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비리와 입주인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민간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7개 아파트 단지만 등록을 마쳤으며 부산·울산 40개, 대구·경북 58개, 대전·충남 86개 단지가 각각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용 실적도 전무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484개 민간아파트 단지가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을 마치고 18건의 전자입찰이

진행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민간아파트 전자입찰 상황을 살펴보면 도사와 가구, 복사기, 태극기 등 물품 구매는 물론이고 위탁관리업자 선정 용역, 청소경비용역, 화재보험 등 종류도 다양하다. 또 1억원 이상 구매도 다섯 건이나 됐다.

실제 조달청이 입찰이 완료된 총 16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제한이나 특정규격으로 공고한 일부 입찰을 제외하고 8건은 5개사 이상 투찰했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2건은 10개사 이상이 참여해 실질적인 경쟁이 성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년간 한 업체가 독점 위탁관리하던 서울 우성그린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6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고 대전의 버드내아파트는 화재수신기 교체 공사에서 3000만원, 신동아아파트는 청소소독업체 선정에 연간 7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관리 사무소들이 아파트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나 공사, 용역 조달 때 나라 장터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수혁 광주지방조달청장은 “나라

장터 아파트 개방은 민간부분 조달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비용 및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증진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아파트관리소들이 나라장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스템 이용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라장터 = 조달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등록을 마치면 어느 기관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년후에 받아 볼 ‘느린 우체통’

13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에 마련된 ‘느린 우체통’(Happy U-Letter) 앞에서 시민들이 편지를 쓰고 있다. 느린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1년 뒤 기록한 주소지로 엽서를 무료배달해준다.

〈금호고속 제공〉

하이트진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하이트진로는 여성가족부의 ‘2013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임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힘썼다.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제를 도입하고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배우자포함)

와 경조사관련 휴가를 적극 보내주고 상조 서비스를 실시하며, 자녀학자금과 사교육비도 준다.

장기근속 포상·집중휴가제 도입 등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가족친화인증기관 평가제는 여성가족부가 2008년 저출산 대책 마련·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해남고구마 NFC태그 진품 인증

지자체의 이름을 붙인 농작물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 신뢰성을 높인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NFC서비스 플랫폼기업 켈리코스터는 12일 내년 1월부터 해남 고구마 생산자협회와 함께 현지에서 생산한 명품고구마에 대한 진품인증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는 켈리코스터가 보유한 근거리 비접촉식 통신기술 ‘릭

태그 진품인증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고구마 포장박스에 부착된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생산자협회가 인증한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정인 켈리코스터 대표는 “시도 자체가 불법일 뿐더러 소모되는 비용·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NFC 태그 복제는 불가능하다”며 “기술이 상용화되면 할량 미달의 제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

한동우 신한금융회장 연임 확정

한동우(65)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1일 회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거쳐 한 회장을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그는 오는 12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기 회장 내정자가 된다.

이어 내년 3월23일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확정되고, 이튿날인 24일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

한 회장은 이날 면접을 마치고 기

자들과 만나 “따뜻한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한 회장은 1982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종합기획부장, 개인고객본부·신용관리담당 부행장, 신한생명 사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공공요금 올려 공공기관 빚 줄이기

고강도 개혁작업…수도·전기·통행료 인상 우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작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하수도료,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1분기 중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12개 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대부분 공공

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채는 412조3000억원으로 국가부채(443조원)에 맞먹는다. 더욱이 빚 가운데 금융부채가 305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214억원씩 연간 이자로 지급되는 돈만 7조8092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작업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수순은 공개입 경영이 정상화된 뒤 요금정상화로 가야 한다. 방만경영 등 문제가 제대로 정리돼야 요금정상화의 명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중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금융당국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 내년 상반기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간병 등 현물로 지원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은 2015년에 나온다. 장기세계혜택 펀드와 장수 채권도 도입돼 노후를 대비한 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판매된다. 가입 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며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

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험액이 1억원으로 상향 되지만 자기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보험료 지급 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자기 부담비율을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노후건강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보험은 2015년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장례서비스, 식사·세면 도움, 외출 동행, 청소·세탁까지 지원한다.

장수채권도 2016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채권이란 수명이 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 순회전

아 수상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광주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12일 이재승 대한항공 광주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D빌딩에서 열린 ‘제20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순회전을 찾

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 기업투어 두번째 기업

세계 첫 벽걸이 세탁기 개발한 ‘씨엔티’

세계 최초로 벽걸이형 세탁기를 개발한 씨엔티(C&T, 대표 유시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가 실시한 기업투어 두 번째 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주 전국산업단지에서 입주한 씨엔티는 지난 2006년 설립된 금형부품 및 가전·전자제품 전문기업으로, 세탁기 부품, 미니 벽걸이 세탁기, 농산물 건조기, 대형 선풍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58억원, 올해는 7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부대우전자와 공동

개발한 ‘미니 벽걸이 세탁기 Mini’는 세계 최초 벽걸이형 세탁기로, 실용성을 노린 개발 아이디어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부대우전자의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6월엔 효율성이 극대화된 농산물 건조기를 개발, 제조한 데 이어 최근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우드펠릿’을 활용한 첫 자체 브랜드로 ‘우드펠릿 스토브와 난로’까지 출시했다.

유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산하원 협력활동에도 적극 참여

해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품질, 제품을 만들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어 행사는 산업공이 독자적인 홍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언론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러스터 회원사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강소(強小)기업에게 기업투어와 PR지원 대행 등을 진행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67.93 (-10.04)	▲ 코스닥지수 495.64 (+0.86)	금리(국고채 3년) 3.01% (0.00)	▼ 원·달러 환율 1051.00원 (-1.10)
-----------------------------	---------------------------	----------------------------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온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